

2. 마지막 일들 - 7.

# 말세 (末世:THE LAST DAYS)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전 10:11)

\* \* \*

### 1.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히 9:26)고 말씀한다. 여기서 ‘세상 끝’은 ‘말세’ 곧 ‘마지막 날들(last days)’이고, 그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처음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자기 시대에 역사의 시간표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일반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영속적으로 흐를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 백성이 말세의 시작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십 일 되던 날인 오순절이었다. 그날에 주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했고, 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마침 큰 절기를 맞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유대인들이 기대치도 않게 자기들의 지역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방문자들 스스로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수근거렸기 때문이다(행 2:11). 이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엘의 예언이 “말세에” 성취될 말씀이었다는 것이다(행 2:16-21; 율 2:28-32).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말세가 어느 때인지 예측하지 못했고, 아마도 세상이 끝나는 어느 시점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말세가 자기들 시대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행 2:16-21 \_\_\_\_\_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몸소 겪고 나서야 자기들 시대가 말세인 것을 확인했지만, 히브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말세를 알린 첫 번째 기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2).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말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들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자기들 가운데 시작된 말세의 현실을 생생히 목격하고도 그들의 세대가 말세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사 2:2-4).

사 2:2-4 \_\_\_\_\_

지금 우리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말세의 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히 들리고 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열방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끝이 오고 있다. 말세의 마지막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온 땅에 덮칠 것이다(암 8:11-13). 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것이다.

**Q.**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세를, 우리는 알고 있는 표시가 무엇인가?

마 13:14-17; 고전 2:9-10 \_\_\_\_\_

\* \* \*

## 2. 말세에는 고통 하는 때가 찾아온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과 외인들로 확연하게 나뉘어 있다. 하나님 백성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다니엘 선지자는 말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10).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말세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다. 말씀을 아는 자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연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혜자들이 겪을 일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받고도 끝내 예복이 없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마 22:12-14).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할 것은 희고 깨끗한 예복이다. 예복을 들고가면 주님이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 예복은 다름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 19:7-8).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혼인잔치에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때문이다(벧전 4:12-14).

벧전 4:12-14

---

그렇다면 말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 예언되었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떤 고통의 때를 지나며 연단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세에 찾아올 어려운 때의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열 아홉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주었다(딤후 3:1-5).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서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디모데에게 후일에 관해 말하면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는데(딤후 4:1), 이것은 우리가 위에 열거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미혹에 이끌리면 반드시 당하게 될 결과를 알려준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경고하셨다(마 24:4-5). 우리가 말세에 찾아올 어려운 시기로부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결과도 같이 맞을 것인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겠고, 거짓 가르침을 쫓아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을 당하는 것이다(마 24:10-12).

마 24:10-12

---

세상은 말세로 갈수록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며, 경건하게 살려는 하나님 백성을 조롱할 것이다(벧후 3:3-4; 유 1:18-19). 그들은 말하길 ‘도대체 말세 말세 하는데 세상에 무슨 끝이 온다는 것인가? 너희가 믿는 예수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온다고 해 놓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가? 왜 아직도 그 허구를 따르며 헛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고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모든 미혹의 말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

유 1:18-19

---

**Q.**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 11:33-35

---

\* \* \*

3. 하나님의 백성은 말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우리 생명은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 뜻은 우리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때, 하나님 안에 감춰 있던 우리의 참 모습이 확연히 나타날 것이다(골 3:1-4). 그러므로 말세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홀로 분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모여야 한다(히 10:24-25). 이것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길이다(고후 1:14). 말세의 어려운 인생 여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운 일들이 영원히 서로에게 기억되고, 영원히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골 3:1-4 \_\_\_\_\_  
 \_\_\_\_\_

**Q.** 현대는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해서 약으로 치료하려는 시도까지 한다. 주변에 말 한 마디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죄가 주는 고통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고 함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서로를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가?

히 10:19-25 \_\_\_\_\_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에 현실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위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홀로 고통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